

## 당뇨병성 백내장

눈에 영향을 주는 성인병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를 들 수가 있는데, 성인병은 시력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저의 혈관에 출혈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당뇨병에는 혈액 중의 당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 안저에도 영향을 미쳐 안저의 혈관이 약해 출혈하기 쉽게 된다. 만성적인 병에 의해 안저에 하등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병의 회복이 어려운 만큼 시력 장애도 간단하게 개선될 수 없다. 당뇨병은 진행되는 병이고, 관리하는 병이다. 당뇨병 환자의 시력 관리에 있어 당뇨병성 백내장에 대해 알아보자.

### 백내장

흔히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을 꼽는데, 말 그대로 순전히 당뇨병에 의한 백내장은 드물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노인성 백내장이 당뇨병 환자에서 정상인 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좀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뇨병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뇨병 조절이 잘 되어있고 전신상태가 양호하면 최근 수술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단지 당뇨병이 있으므로 수술에 따른 감염이나, 출혈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간 높을 수는 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 인공 수정체

백내장 수술이란 눈 안의 혼탁된 수정체(사진기로 말하면 렌즈 부분)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일단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면 광선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잘 통과 할 수 있으나, 수정체(렌즈)가 없으므로 정

확한 초점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수술 후 환해 지기는 하였으나 사물의 상이 뚜렷치 않아 오히려 수술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종래에는 수술 후 아주 두꺼운 백내장 안경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사용 시 아주 많은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면, 두꺼운 백내장 안경은



우선 한쪽 눈만 수술을 받았을 경우엔 양안의 도수 차가 너무 커서 착용할 수가 없으며 일단 양안을 수술하여 안경을 착용하여도 물체의 상이 보통 때보다 약 30% 크게 보이며, 중심부는 그런 대로 잘 보이나 안경의 주변부는 높은 도수에 의한 구면 수차에 의하여 상이 휘어져 보이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된다.

또한 안경이 크고 무거워서 착용이 불편하고 외관 상으로도 좋지 않은 등의 단점이 있다.

콘택트 렌즈는 안경의 이러한 결점을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으나 나이가 많은 노인은 아침, 저녁으로 끼고, 빼고, 규칙적인 소득을 하여야 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눈 안에 이물을 끼고 있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따라서는 아예 끼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인공수정체 수술은 백내장 수술시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원래의 수정체가 있던 곳에 인공으로 만든 깨끗한 렌즈를 새로 끼워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환자는 수술 후 종래에 사용하던 두꺼운 백내장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단지 수술 후 약간의 난시 등을 교정하여 주는 가벼운 안경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 레이저광선 수술

흔히 레이저광선으로 백내장을 수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레이저광선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차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차로 수술을 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시 원래의 수정체를 전부 제거하지 않고 수정체의 알맹이 부분만을 제거하고 수정체의 껍질 부분은 남기어 이곳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된다.

따라서 일차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서 수정체의 껍질 부분에 다시 혼탁이 오는 (수술 후에 다시 혼탁이 온다 하여 후백내장이라고 부름) 경우에는 최근 개발된 특수 레이저 광선기계를 이용하여 치료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엔 더 이상 백내장의 재발은 없으며 따로 인공수정체를 더 넣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

### 굴절력의 변화

당뇨병 환자 중, 특히 당뇨병 조절을 열심히 하지 않는 환자 중에서 “요즈음 갑자기 눈이 좋아져서 돋보기 없이도 신문물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수정체의 굴절력에 변화가 온 경우이다.

좋아 할 일이 아니고 서둘러 당뇨병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다. 